

“하물이 있으면 곧 참회하고, 잘못이 있으면 곧 부끄러워해야 장부(丈夫)의 기상이 있는 것”이라고 서산대사는 일렀지만 참회가 손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팔장부에게는 그렇다.
 그러나 이 팔장부도 뒤늦게, 참으로 뒤늦게 깨달은 일이 있다.
 직장에서 20여년만에 만난 고교시절 동창이 있었다. 얼굴도 이름도 서로 알지만 40대가 돼야 가까이 접촉하게 됐으니 사실상 새로 얻은 친구나 다름없었다.
 그는 몇장이 풍류객이었다. 술을 즐기고, 사치계에서는 일가(一家)를 이룬 작가였다. 도시 숲은 입에 달출 모르고, 예술에 대해서도 무지몽매한 직장인이었던 나와는 사는 세계가 달랐다.
 덩달하게 지내는 사이에 그 친구가 정년퇴직하

한국불교 미래 ‘수행 관건’

조계종 승·재가 설문 발전저해요인 ‘분규’ ‘문중이기주의’ 順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에 대해 대다수의 불자들은 ‘수행’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 발전 5개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하기 위해 종단내 각 기관과 단체 구성원들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스님 182명 재가자 257명 등 4백39명이 응답한 이 설문에 따르면 종단 스님들의 사회적 신망도를 묻는 질문에 18.5%가 매우 높거나 비교적 높다고 답하고 76.7%가 “그저 그렇다”와 다소 낮다고 답했다. 스님들의

신망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수 응답자의 48%가 수행결여를 꼽았다. 특히 응답한 스님 가운데 절반 가량이 수행결여를 꼽아 승가내에서도 수행종도 진작에 대한 자신감과 열망이 꺾여져 있음을 드러냈다.
 수행의 중요성은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의 답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응답자의 66.3%인 2백91명이 수행자의 수행력을 불교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답했으며 21.6%인 95명이 고승대덕들의 법력이라고 답한 것. 종단 발전의 저해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연건평 240평으로 효의 본질 응주시에 효행교육원이 착공했다.

전통사찰 농지취득 ‘파란불’

월주스님, 농림장관 예방 “검토하겠다” 확답

조계종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1일 이효계농림부 장관을 예방 “농림부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전통사찰도 농지취득을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주스님의 예방에 배석했던 농림부 최일도 농지관리과장은 “농지법 제6조2항2호에 농지소유 예외규정이 있고 시행규칙 제4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한 농지취득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농림부 장관이 시행규칙에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인정하면 조계종의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취득 허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령은 장관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농지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지면 공공수용등으로 매각

용주사 효행교육원 21일 착공

성보박물관도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21일 효행교육원·성보박물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성보박물관은 연면적 1백3평에 지상1층(75평), 지하1층(27평)규모로 98년 8월 완공된다. 용주사를 효의 본찰로 위상을 드러낼 화산효행교육원은 지상2층(1백20평), 지하 1층(1백20평)규모로 효행교육관, 생활관등을 비롯 각종 교육시설을 갖추고 98년 10월 낙성될 계획이다.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은 “전통적인 효사상과 회백을 통해 현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효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의 장이 열릴 것”을 기원했다.

용암사 방화추정 불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재 용암사(주지 현정)에 20일 오후 7시 40분경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대응전이 전소됐다. 이날 화재로 저층 목격한 한지 교육시설을 갖추고 98년 10월 낙성될 계획이다.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은 “전통적인 효사상과 회백을 통해 현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효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의 장이 열릴 것”을 기원했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 불교 연중캠페인
 게 됐다. 나이가 약간 앞섰다는 말을 들었지만 너무 낮은 정년 연립규정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막상 그 친구가 그만 두고 난 뒤, 짐을 같이 해야 했다 싶어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집에 없었다. 또 그 친구도 전화를 해주지 않았다. 경복궁에서 우연히 만나 고도 덩달하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 그것으로 그 친구는 잊어버렸다.
 운이 좋아 나는 그로부터 십수년뒤 정년퇴직을



정경희

“친구여, 정말 미안하다”

하게 됐다. 그것은 직장을 인생의 일부로 생각해 온 직업인으로서 아무리 대법하러해도 건디기 어려운 충격임을 나 자신이 체험하고서야 알았다.
 그때 비로소 십수년전 아무런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않고 헤어진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친구는 나를 얼마나 괴롭게 생각했을까.
 또 그때 비로소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그가 전화를 하지않았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 자신 남의 직장에,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한 친구이건 또는 후배이건 결코 전화를 걸지 않는다. 사회인으로서 모든 것을 박탈당했지만, 나에게 허용된 마지막 소유물-일단한 자존심에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다. 그 친구도 같은 심정이었으리라는 짐작이 갔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가끔 들리던 그의 소식도 끊긴지 오래됐다. 뒤늦게, 정말 뒤늦게 깨달은 나의 어리석음을 지금이라도 만난다면 사과하고 싶지만, 이미 흘러간 과거가 돼버린 것인지...
 류석호... 정말 미안하다.
 (언론인)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조계종 사찰관계시스템 추진 22면

구족계 수계산림 6박7일 11면

“참회하는 삶 위한 바람(願) 정진(力)” 3천배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불교계와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연중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합니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성취를 위해 평생 한 번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령의 상징입니다. 평소 3000배 기도원력이 있었지만 업무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절치 않았던 분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포를 드립니다.

- 행사 안내**
- △ 임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 4시
 - △ 회 향: 11월 2일(일) 오전 5시(새벽예불후)
 - △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
 - △ 참석인원: 사부대중 1천명(선착순)
 - △ 동참비: 5천원
 - △ 일 정: 임제사→5배배 하고 10분씩 휴식→저녁공양 간식공양→새벽예불→외향식
 - △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불통, 따뜻한 걸음
 - △ 접 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 △ 은행계좌: 국민은행 (02-21-0631-145)(예금주 최상철)
 (입금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교통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3번출구로 나와 일반버스 6번, 6-1번을 타고 종점서 하차, 종점 맞은편에 도선사행 열버스 대기.
- 주최: 현대불교신문·도선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 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공모 내용**
- △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 △ 당선료: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 △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예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예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용모지 전원: 기념품 증정

10월 1일
漢拏 創設 35周年

重工業 외길 35年

“漢拏는 環境과 道德을 旗幟로 人間과 自然이 次元높게 調和하는 가운데 儉素, 勤勉, 效率을 經營信條로 때로는 極端의인 立地에서 極端의인 境地로 근두박질하는 迂餘曲折속에서 몇 百年간은 三十五年을 지나오며 體質을 단련해 왔습니다.
 이제 21世紀에는 어떠한 境地를 맞이하게 될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豫測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딪쳐야 할 事態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形態이건 간에 부딪쳐 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것은 'Face The Fact' 라는 말처럼 부딪쳐 봐야 하겠습니다.”

- 漢拏그룹 創設 35주년 紀念辭 中에서 -

漢拏그룹 名譽會長 **鄭仁永**

漢拏
 (信賴와 創造)